

## 언어접촉환경의 유형에 대한 분석

리 찬 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생활은 언어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교제활동이며 사회생활의 한 분야입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26페이지)

사람들은 언어생활과정에 다른 언어들과 접촉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많은 언어접촉현상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접촉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접촉현상들이 발생하는 환경의 유형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접촉환경의 유형에는 무엇보다먼저 언어유지환경이 있다.

언어유지환경이란 한 언어사용집단이 대를 이어가며 자기의 모국어를 그대로 유지하며 사용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 환경에서 다른 언어와의 제한된 접촉으로 해당 언어는 약간의 정도로 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고유의 내부체계들 즉 어음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기본적인 어휘들이 상대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된다.

언어가 유지되는 경우에 어느 한 집단의 모국어의 어휘와 구조에 접촉중에 있는 외부언어가 각이한 정도로 영향을 줄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용이다.

여기에서 차용은 어느 한 집단의 모국어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자기의 언어체계에 다른 언어의 특징들을 결합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차용하는 언어를 수신언어라고 하며 차용되는 언어를 외국어 혹은 원천언어라고 한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수신언어를 다른 언어의 언어적특징들을 자기 언어체계에 결합하는 언어로, 원천언어를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는 언어로 볼수도 있다.

차용정도는 일정한 어휘차용으로부터 광범한 어휘차용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구조적특징들의 결합으로부터 다소 중대한 결합에 이르기까지 각이하다.

언어유지환경에서는 우선 어휘차용이 진행된다.

기본적인 어휘차용 즉 명사, 동사와 같은 내용형태부들을 차용하는 환경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들에 차용어들이 들어있게 된다. 때때로 많은 어휘들의 차용은 해당 언어구조의 다른 측면들뿐만아니라 어휘적의미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

언어유지환경에서는 또한 문법차용이 진행된다.

문법차용은 국경지역이나 다국어사용정도가 높은 언어공동체와 같이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이에 위치한 지역들에서 서로 다른 언어들이 사용될 때 진행될수 있다.

국경지역환경의 실례로서 언어련맹을 들수 있다. 제일 잘 알려진 언어련맹은 발칸언어련맹으로서 여기서는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그리스어, 마케도니아어와 같은 여러 언어들이 서로 장기간 접촉하는 과정에 문법구조적특징들이 차용되어 류사해지게 되었다.

두개이상의 언어들이 사용되는 언어공동체안에서 언어접촉으로 하여 서로 련관된 언어들사이에 구조들이 서로 류사해지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인디아의 쿠프와마을을 들수 있

는데 여기서는 마라시어, 칸나다어, 힌디-요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접촉하는 과정에 문법구조적측면에서 서로 류사해지고 어휘적측면에서만 차이가 있다.

지배적인 큰 집단에 종속되어 사는 소수 집단의 언어는 지배집단언어의 영향을 장기간 받아오는 과정에 구조적 및 어휘적측면에서 지배집단언어와 류사해지게 된다. 실례로 소아시아그리스어에는 튀르키예어의 영향을 받아 튀르키예어의 특징들이 많이 존재하고있으며 중국어의 한 변종인 위탄어도 티베트어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다.

언어유지환경에는 또한 안정된 2중언어사용공동체에서의 언어적환경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2중언어혼합이 보편적인것으로 되고있어 코드변환이라는 독특한 현상이 생긴다.

코드변환은 언어사용자가 언어행위를 진행하면서 한 담화안에서 두 언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한다.

많은 2중언어변종사용 및 다수언어사용공동체에서 코드선택은 사용환경이나 혹은 사용령역과 관련되어있으므로 코드들이 호상 배제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2중언어변종사용환경에 있는 나라와 지역들로서는 표준도이칠란드어와 스위스도이칠란드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와 지역어와 고전아랍어를 사용하는 중동나라들이며 다수언어사용환경에 있는 나라들로서는 사람들이 대화자와 환경에 따라 영어와 말라이어 기타 만다린어와 같은 종족언어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들수 있다.

접촉환경의 유형에는 다음으로 언어전환환경이 있다.

언어전환환경이란 서로 다른 언어집단들이 접촉하는 과정에 한 언어집단이 다른 집단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민족어를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포기하는 환경을 말한다.

일부 경우들에 이러한 언어전환으로 하여 민족어의 영향을 거의나 받지 않고 목표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는 결과가 나타날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언어전환에는 해당 집단의 1언어가 목표어에 주는 일정한 정도의 영향이 동반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들을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우선 이주민집단이나 소수민족집단이 지배집단의 언어에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언어전환을 하지만 자기 모국어의 언어적요소들을 목표어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실례로 중세영어시기에 노르망프랑스어사용자들이 영어로 언어전환을 진행한 결과 영어어휘와 음운론적측면을 비롯한 일부 구조적측면들에 프랑스어의 영향이 미치여 영어에 프랑스어적요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게 되었다.

한편 소수민족집단이 지배집단의 언어를 습득하면서 일부 기능들에 한하여 자기 모국어의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목표어에 그들의 모국어의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례로 1950년대 후반기부터 도이칠란드에서 외국인림시고용노동자들이 사용한 도이칠란드어의 2언어변종을 들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소수 집단에만 국한되는것이기때문에 지배집단의 언어에까지 전파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언어전환을 하는 집단의 1언어가 목표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침략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나라들에 자기들의 언어를 전파시키는데 이때 그들의 언어는 식민지인민들에게 있어서 언어전환의 목표어로 되며 토착어는 그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실례로 인디아영어와 필리핀영어, 아일랜드영어를 들수 있는데 이 언어들 이 영국영어와 차이나는것은 바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언어전환환경에서는 개별적인 사람에 의한 언어전환과 집단에 의한 언어전환이 진행된다.

이 두 유형에서는 기층언어의 영향과 내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개별적사람에 의한 언어전환에 미치는 1언어의 간섭은 그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기층언어영향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로 된다. 같은 유형의 변화가 여러 개별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모방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것은 그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 체계로 규범화되며 그 시점에서 그것들은 기층언어의 특징으로 될수 있다.

기층언어의 영향은 음성과 문장형식 때로는 형태론적측면에서부터 시작되며 그리하여 1언어는 목표어에 어휘적측면에서보다 구조적측면에서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언어전환이 목표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에 알고있던 민족어를 점차적으로 완전히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만큼 이러한 환경들은 언어전환이 진행되기 전에 사용하던 언어가 점차적으로 사멸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접촉환경의 유형에는 다음으로 새로운 접촉언어들이 생겨나는 환경이 있다.

언어유지환경이나 언어전환환경과 차이나는 특수한 이 환경에서는 2중혼합어와 피진어, 크레올어라고 하는 새로운 접촉언어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접촉언어들은 67개로서 그것들가운데서 2중혼합어가 4개, 영어어휘 계열의 피진어와 크레올어들은 27개, 포르투갈어/에스빠냐어어휘계열의 크레올어는 6개, 도이칠란드어어휘계열의 크레올어는 3개, 프랑스어어휘계열의 크레올어는 7개, 반투어어휘계열의 피진어와 크레올어는 8개, 기타가 12개이다.

새로운 접촉언어가 생겨나는 환경에는 우선 2중혼합어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있다.

2중혼합어들은 두 종족이 오랜 기간 접촉하는 과정에 2중언어사용환경이 형성되고 그 언어들사이의 혼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생겨난다.

이 경우에 그 혼합이 언어공동체의 규범으로 관습화되어 그 구성성분들의 기원을 두 언어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원천언어에서 찾을수 있는 혼종언어들이 생겨난다.

실례로 에파포르의 미디어 령파어를 들수 있는데 이 언어는 에스빠냐어의 어휘가 케추아어의 문법적틀거리에 결합된 언어이다. 미디어 령파어는 케추아어의 문장론적규칙뿐아니라 복잡한 형태론적측면들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있다.

2중혼합어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그것들이 한 언어의 문법과 다른 언어의 어휘가 융합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것이다.

새로운 접촉언어가 생겨나는 환경에는 또한 피진어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있다.

무역, 강제노동 등과 같은 접촉의 제한된 환경에서 서로 다른 언어적배경을 가진 집단들사이의 교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피진어는 최대로 줄여지고 간략화되면서 제한된 사용목적에 맞게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피진어는 어휘와 구조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 누구에게도 모국어로 되지 않으며 무역과 같이 제한된 범위의 통신행위기능에서만 공용어로 사용되는 접촉언어들을 의미한다.

피진어는 원형피진어와 확대된 피진어, 간략화된 피진어로 구분된다.

원형피진어는 언어학자들이 원형으로 내세운 피진어로서 접촉언어학자들은 18세기말

부터 1920년대까지 노르웨이북쪽지역에서 로씨야어민들과 노르웨이인들사이의 무역에서 사용되었던 르세노르스크를 피진어의 원형으로 간주한다.

확대된 피진어는 원형피진어로부터 발전하였으며 기초방언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어휘와 문법이 보다 풍부해지고 완성된 피진어이다. 이 피진어는 완성과정에 이전의 피진어를 일상교제어로 사용한 집단들의 1언어에 있는 많은 언어적요소들을 리용한다. 그러므로 확대된 피진어들의 문법은 상층언어의 문법보다 기층언어의 문법들과 훨씬 더 유사하다. 실례로 바누아투의 비슬라마어와 솔로몬제도의 피진어, 파푸아 뉴기니아의 독피신을 들수 있다.

간략화된 피진어는 원형피진어보다 작은 범위에서 피진화과정을 거친 언어로서 어휘와 문법에서 상층언어와 아주 유사하다. 실례로 싰고어, 킨투바어, 파푸아 뉴기니아의 이마스피진어와 히리모투 등을 들수 있다.

이 언어들은 원형피진어보다 어휘와 문법이 보다 더 완성되었으며 상층언어의 많은 문법적요소들을 리용하였다.

이 언어들을 피진어로 보는 리유는 그 언어들이 집단들사이의 교제에서 공용어로 쓰이며 원천언어들보다 구조적으로 더 단순하여졌기때문이다.

새로운 접촉언어가 생겨나는 환경에는 또한 크레올어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있다.

크레올어는 식민지에서 태어난 노예들의 후손들 즉 크레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15세기부터 19세기사이에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확장책동으로 하여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끌려온 노예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들이 생겨났다. 아메리카대륙의 남부와 북부지역의 농장들에 존재한 이 공동체들에서는 노예들과 유럽식민주의자들사이의 접촉으로 인하여 새로운 접촉언어인 크레올어들이 출현하였다. 그 언어들은 식민지에서 태어난 노예 후손들 즉 크레올들이 사용하였기때문에 크레올어라고 불리운다.

이러한 언어들은 형성과정에 식민주의자들의 상층언어와 노예들의 모국어에서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

크레올어는 중간크레올어와 급진적인 크레올어로 구분된다.

중간크레올어는 접촉언어선상에서 보면 다른 크레올어들보다 상층언어쪽으로 더 가까이 놓여있는 크레올어이다. 상층언어와 중간크레올어사이에는 아일랜드영어, 싱가포르영어, 타이만다린 등과 같이 목표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지 못한 결과에 생긴 언어들이 놓이게 된다.

바베이도즈어, 가이아나어와 트리니다드 토바고 크레올어와 같은 카리브해지역의 중간크레올어들은 형성과정에 기층언어에 비하여 상층언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언어들이다.

급진적인 크레올어는 접촉언어선상에서 중간크레올어보다 상층언어와는 거리가 멀고 기층언어방향으로 치우친 크레올어들이다.

전형적인 실례로는 스라난 통고어를 들수 있다. 이 언어는 새로 끌려온 노예들이 이미 먼저 끌려온 노예들이 사용한 2언어변종들을 습득하는 과정에 발전하였으며 이 크레올어의 문법형성에서 서아프리카언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언어접촉환경의 류형들에 깊은 리해에 기초하여 각이한 언어접촉현상을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접촉언어학리론을 풍부히 하여야 할것이다.